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렇다 어떠하랴
하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쓰습하랴 <제1수>

[A]

연하(烟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삼아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 가네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제2수>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사시 가흥(佳興)이 사람과 한가지라
하물며 어약연비(魚躍鸞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느 끝이
있으리 <제6수>
- 이황, 「도산십이곡」 -

(나)
산가(山家) 풍수설에 동구 못이 좋다 할새
십 년을 경영하여 한 땅을 얻으니
형세는 좁고 굽은 암석은 많고 많다
옛 길을 새로 내고 작은 언뜻 파서
활수*를 끌어 들어 가는 것을 머물게 하니
맑은 거울 티 없어 산 그림자 잠겨 있다
천고(千古)에 황무지를 아무도 모르더니
일조(一朝)에 진면목을 내 혼자 알았노라
처음의 이 내 뜻은 물 머물게 할 뿐이더니
이제는 돌아보니 가지가지 다 좋구나
백석은 치치(齒齒)하여 은도로 새겨 있고
벽류는 팔팔 흘러 옥 술잔을 때리는 듯
침침한 산들은 좌우의 병풍이요
뽀뽀한 소나무는 전후의 울타리로다
구곡 상하대는 층층이 둘러 있고
삼경(三徑) 송국죽(松菊竹)은 줄지어 벌여 있다
하물며 바위 벼랑 높은 위에 노송이 용이 되어 구부러 누웠
거늘
운근(雲根)을 베어 내고 ㉠ 작은 정자 붙여 세워
떠 풀로 지붕 이고 자르지 않으니 이것이 어떤 집인가
남양의 제갈려인가 무이의 와룡암인가*
다시금 살펴보니 필필 위연의 그림의 것이로다
무릉도원을 애 듣고 못 뵈더니
이제야 알겠구나 이 진짜 거기로다
- 김득연, 「지수정가」 -

*활수: 흐르는 물.
*남양의 제갈려, 무이의 와룡암: 옛 현인이 은거한 거처.

(다)
내 초로의 어느 가을날, 나는 겸재가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동해 승경을 화폭에 옮겼던 월송정, 망양정, 청간정, 성류굴을
일삼아 떠돌아다녔다. 망양정은 옛 기성면의 바닷가에서 지금의
근남면 산포리로 옮겨 세운 지가 140여 년이 넘어, 기성면의
㉡ 옛 망양정 자리는 도로 공사로 단애의 허리가 잘리워 나가,
바닷물은 단애 끝으로부터 멀찌감치 쫓겨났고 그 사이는 시멘트
철갑이 되어 있었다. 정자 터는 사방이 깎여져 나갔고 화폭 속의
소나무 숲도 베어져 버린 채, 그 언덕은 그저 무의미한 흙더미로
변해 있었다. 마을의 고로(古老)들도 그곳에 들어서 있던 정자를
본 일은 없었고, 다만 그들의 증조나 고조로부터 전해 오는
구전에 의해 그 흙더미가 망양정 옛터였음을 옮길 뿐이었다.
겸재의 화폭을 마음속에 앞세우고 겸재 실경산수(實景山水)의
자리를 찾을 적에 그곳에 옛 정자가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린
그 허전한 사태는 그다지 허전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현실 속의
정자에 오르면 화폭 속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육신의 눈을
앞세워 정자를 찾아오는 자에게는 풍경 전체 속에서 인간세의
위치와 규모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중략)
면 산을 그릴 때 그는 그 산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
면 것들은 원근상의 거리에 의해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 의해 자리 잡는다. 겸재의 화폭 속에서 풍경은 가깝
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고 또 멀다는 이유만
[C] 으로 사실성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대체로 그의 그림 속에
서는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정자, 집, 배, 나귀,
가마, 화분, 성곽 같은 것들이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고 있지만, 그 사실성은 원근에 의해 정립되는 사실성이
아니라,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사실성이다.
- 김훈, 「겸재의 빛」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주목하여 대상과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 ②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며 좌절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현실을 통찰하며 관용적 삶에 대한 지향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계절감을 활용하여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23.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제1수> 초장은 유사한 어휘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A]의 <제2수> 초장은 <제1수> 종장의 시상을 이어받아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에서는 '산 그림자'가 담긴 '작은 언뜻'의 경관을 묘사하여 깨끗한 자연의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A]의 '집을 삼고'와 '벗을 삼아'는 화자와 대상의 가까운 관계를, [B]의 '끌어 들어'와 '머물게 하니'는 화자가 대상을 가까이 하려는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의 '허물이나 없고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B]의 '티 없어'는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도산십이곡」에서 강호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으로, 「지수정가」에서 강호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도산십이곡」에서는 조화로운 자연과 합일하는 화자가 등장하며, 「지수정가」에서는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며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가 등장한다.

- ① (가)의 '초야우생'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와 자연의 이치가 일치된 공간에 존재하는 화자가 스스로를 이르는 말이겠군.
- ② (나)의 '내 혼자 알았노라'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발견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말이겠군.
- ③ (가)의 '천석고황'은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 (나)의 '무릉도원'은 현실적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난 말이겠군.
- ④ (가)의 '사람과 한가지라'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화자의 인식이, (나)의 '가지가지 다 좋구나'는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의 심정이 나타난 말이겠군.
- ⑤ (가)의 '춘풍에 화만산하고 추야에 월만대라'는 계절의 양상을 통해 조화로운 자연을, (나)의 '벽류는 팔팔 흘러 옥 술잔을 때리는 듯'은 화자가 발견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 말이겠군.

25.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인공물이고, ㉡은 글쓴이가 의도하지 않게 찾아낸 장소이다.
- ② ㉠은 현실에서 명예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은 현실에서 편의를 실현한 결과를 보여 준다.
- ③ ㉠은 화자에게 만족하며 머무르는 삶에 대해, ㉡은 글쓴이에게 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 ④ ㉠은 화자에게 일상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이고, ㉡은 글쓴이에게 본래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이다.
- ⑤ ㉠은 화자에게 자신의 삶을 가다듬는 역할을 수행하고, ㉡은 글쓴이에게 자신의 삶을 비판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C]를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겸재는 산을 그리면서도 뻗 건 빼고 과장할 것은 과장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리를 옮겨 가면서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구도로 풍경을 재구성하였다. 한 폭의 그림 속에서 물과 바다, 하늘과 땅, 그리고 정자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어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에 놓일 때야말로 진정한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겸재의 그림은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 ① '면 산을 그릴 때' 그 거리에 집착하지 않는 까닭은,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겠군.
- ②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는 뜻은, 화가가 자신의 시선으로 풍경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겠군.
- ③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는 까닭은, 대상을 표현할 때 뻗 건 빼고 과장할 것은 과장할 수 있다는 화가의 생각 때문이겠군.
- ④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을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도록 그린다는 뜻은, 대상을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로 옮겨 풍경의 원근감을 보이는 그대로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이겠군.
- ⑤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성이 '정립'되는 까닭은, 화가의 의도에 따라 풍경을 재구성하는 창작 작업을 통해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이겠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밤이 깊어지면, 시장 안의 가게들은 하나씩 문을 닫고 길가에 리어카를 놓고 팔던 상인들은 제각기 과일이나 생선, 채소들을 끌고 다리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A] 그 모양을 이만큼에서 서서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바라보면, 리어카마다 켜져 있는 카바이드 불빛이, 마치 난간에 무슨 꽃 등불을 달아 놓은 것처럼 요요하였다. 돈이 없어도 염려가 안 되는 곳.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알았다. 모르는 사람들도 곧 알게 되었다.

[B] 벽오동집 아주머니. 오동나무 아주머니. 그렇게 어머니를 불렀다. 어느새 나무는 그렇게도 하늘 높이 자라서 저기만큼 걸린 메국교 다릿목에서도 그 무성한 가지와 잎사귀를 울려다불 만큼 되었던 것이다.

[C]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 날아간 오동나무 씨앗이 앞뒷집에 떨어져 썩이 나고, 어느 해 바람에 불려 갔는지 그보다 더 먼 건넌집에도, 심지 않은 오동나무가 저절로 자라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별명 지었다. 그것은 어쩌면 이 가난한 동네의 한 호시였는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하시고, 작천의 친정 어머니를 남겨 두신 채, 신행 후에 전주로 돌아와 맨 처음 터를 잡은 곳이 바로 이 천변이었다.

[D] 동네 뒤쪽으로는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 쪽으로는 흰모래 둥근 자갈밭을 데불은 시냇물이 흐르며 거기다 시장까지 가까운 이곳은, 삼십 년 전 그때만 하여도, 부성 밖의 한적하고 빈한한 동네였을 것이다. 물론 우리도 중간에 집을 고치고, 이어 내고, 울타리를 바꾸었으나, 그저 유막처럼 나뭇가지를 열기설기 얽은 뒤, 풍우나 피하자는 시늉으로 지은 집들도 많았을 것이다. 이 울타리 안에서 해마다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는 오동나무는 유월이면, 아련한 유백색의 비단 무늬 같은 꽃을 피웠다. 그윽한 꽃이었다.

제1교시(홀수형) 국어영역 정답					
문 제	정답	배 점	문 제	정답	배 점
22	①	2	25	③	2
23	⑤	2	26	④	2
24	③	3			